

2026년 금 지금 사야 되나요?



Summary

금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금이
싸다는 이야기는 자주 못 들었다. 작년(2025년)
한 해 동안 금은 약 +66%*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시장은 안정형
자산을 찾는다. 고금리의 불안한 실물경제가
자극하는 실질금리 인하 기대감은 종이화폐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때마다
안정적이고 제한된 공급의 실물화폐(Currency)로써
금의 중요성은 증가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 현물 가격의 흐름을 따르는 ETF를 활용해
대응하는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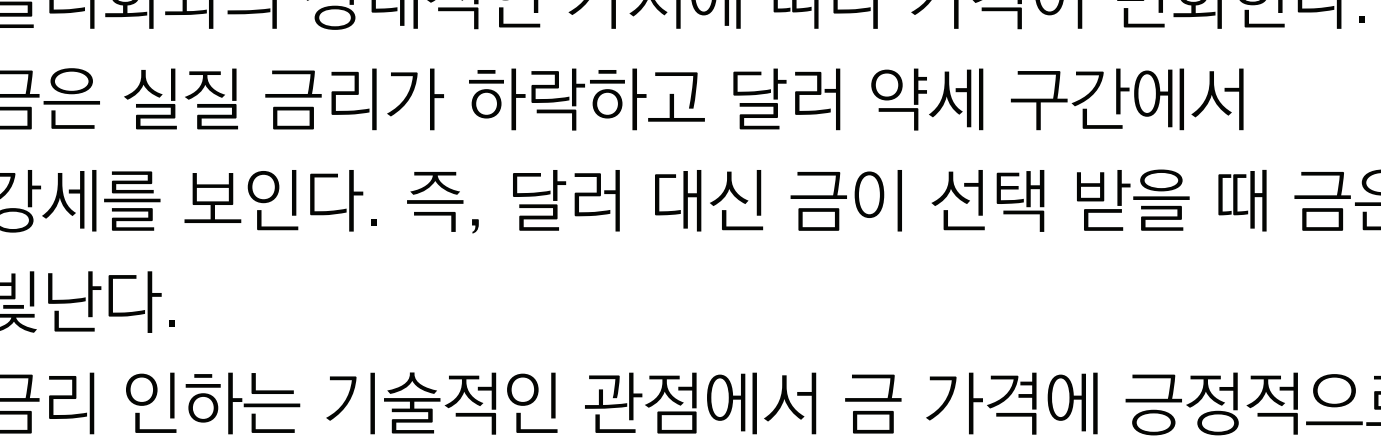
*출처 : Bloomberg, 2025년 금가격 상승률 USD 기준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강한 금

금이라고 하면 대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안정형
자산이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작년 트럼프의
관세로 시작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까지 이어졌다.
불행하게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시에 늘 크고 작게
상존하는 요소다.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는 주식과
달리 위기 때마다 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6년 역시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형
자산으로서 금 투자는 필요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지수와 금 가격 추이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Bloomberg, 2024.01.01~2026.01.0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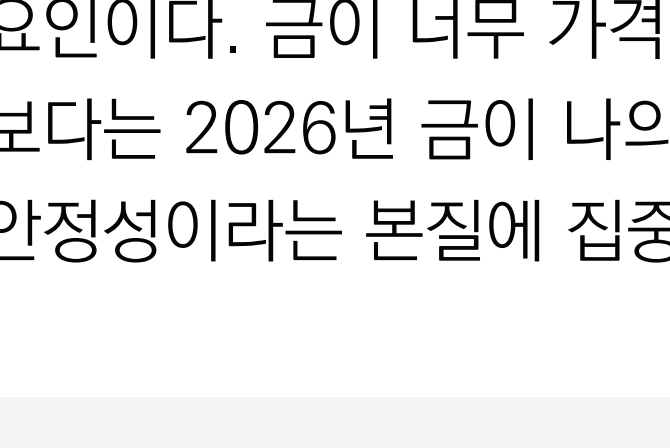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금 가격 상승 요인

금은 재미있는 자산이다. 분명 실체가 있는 원자재
(Commodity)이지만, 화폐(Currency)의 논리가
강하게 적용된다. 원자재는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사용 가치로 평가되고,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한다. 하지만, 금의 경우
마치 종이화폐처럼 교환 가치로 평가되고,
달러화와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가격이 변화한다.
금은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 구간에서
강세를 보인다. 즉, 달러 대신 금이 선택 받을 때 금은
빛난다.

금리 인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금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작년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3.75%로
유의미한 인하가 있었다. 2026년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차기 연준 의장으로 비둘기파인
케빈 워시와 케빈 해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면
달러는 가치가 줄고 금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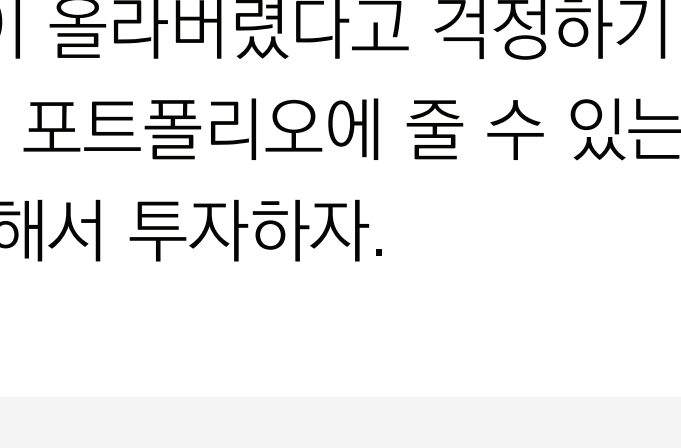
실질 금리 하락 시 상승했던 금 가격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Bloomberg, 2014.12.31~2025.12.31 기준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달러화 약세는 금 강세 요인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Bloomberg, 2014.12.31~2025.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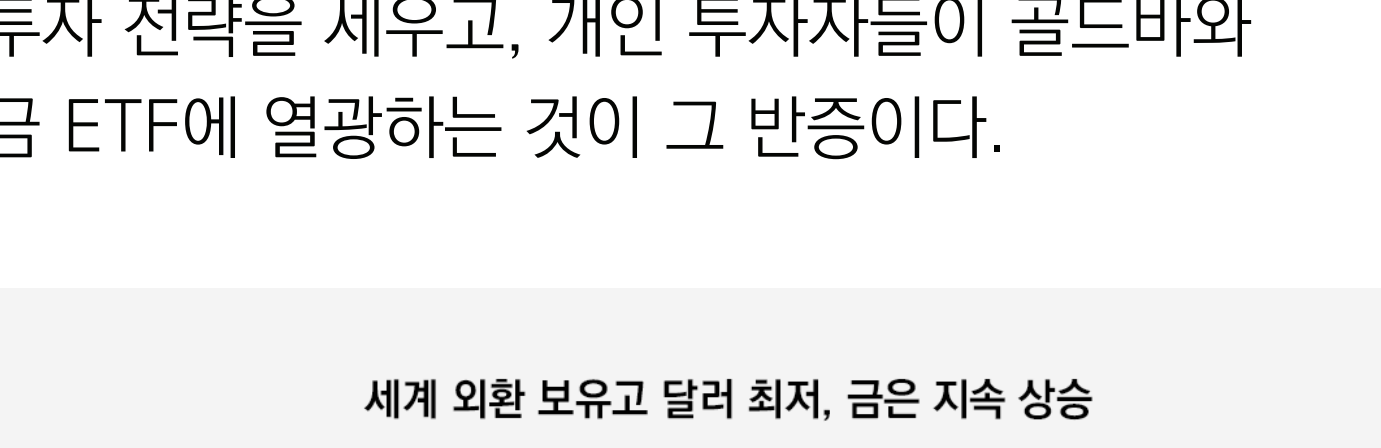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은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강하다

금은 안정형 자산으로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특히 글로벌
주식과 비교할 때 금융 역사 속 굵직한 위기에서
튼튼한 방어력을 보여줬다. 2026년 금 전망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금이 너무 올랐는데 계속
투자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2026년 자산 시장에도
불안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까요?”를
고민해야 한다. 리스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싶으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명한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는 자연스럽게 금에 대한 개인과 기관의 전략적
금 수요를 이끌었고 금 가격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금이 너무 가격이 올라버렸다고 걱정하기
보다는 2026년 금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줄 수 있는
안정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투자하자.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마다 매력적이었던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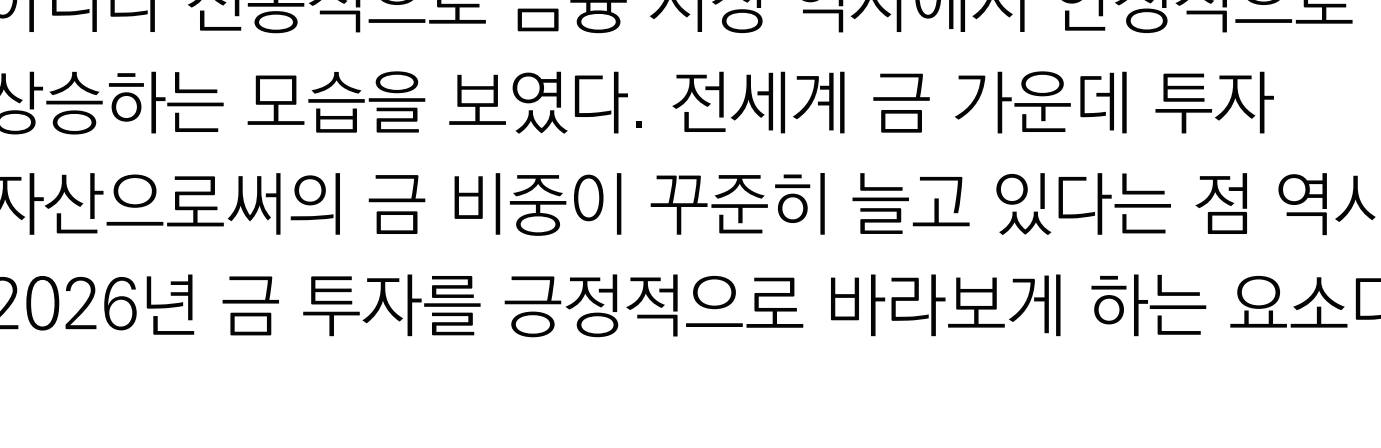
*출처 : VanEck, 미래에셋자산운용,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8월~2009년 3월), 미국 부채 위기 (2010년 1월~2010년 6월), 미국 지역 은행 위기 (2023년 3월),
코로나19 (2020년 1월~2020년 3월), 글로벌 주식 = MSCI ACWI 지수, 글로벌 채권 = Bloomberg Aggregate Bond 지수 기준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선호 현상

안정형 자산의 양대 산맥을 꼽자면 금 그리고 달러다.
위기 상황에서 금 만큼 방어력을 보여주는 자산은
USD 달러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되고 주요
국가들의 금 보유량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탈 세계화의 관점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역, 관세, 기술, 금융 제재를
지속하면서 탈 달러화를 가속시키고 금이 반사이익을
보는 중이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고, 개인 투자자들이 골드바와
금 ETF에 열광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세계 외환 보유고 달러 최저, 금은 지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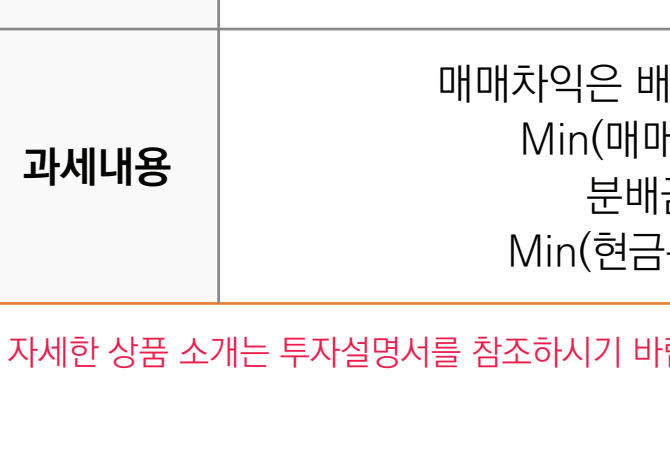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IMF, Bloomberg, 2015.12.31~2025.12.31 기준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의 매력적인 장기 성과

금은 미국 S&P500 지수 만큼 역사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금리 하락 사이클,
금의 안정성, 금의 달러대비 우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다.
금과 S&P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금은 작년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금융 시장 역사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계 금 가운데 투자
자산으로써의 금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역시
2026년 금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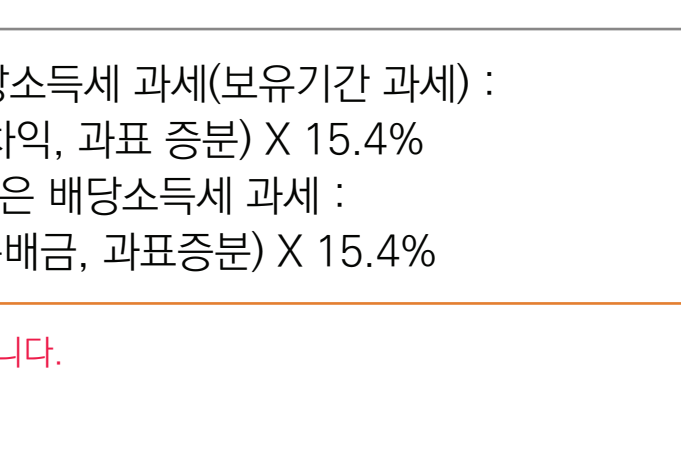
금과 S&P500 지수의 장기 성과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Bloomberg, 1989.12.31~2025.12.31 기준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금 투자 수요



출처 : WORLD GOLD COUNCIL, 단위 : Tonnes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품개요

구분	TIGER KRX금현물 ETF
종목코드	0072R0
최초상장일	2025년 06월 24일
기초지수	KRX 금현물 지수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	연 0.15% (집합투자업자 0.109%, AP/LP 보수 0.001%, 신탁회사 0.02%, 사무관리 0.02%)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배분금, 과표증분) X 15.4%

* 자세한 상품 소개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금가격 변동위험	금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금 생산자의 선도거래 및 헤지거래, 금리변동, 인플레이션율,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의 금신물 거래량, 금을 생산하는 각 국가별 정부의 정책, 국제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금융자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금현물 보유에 따른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금현물은 주식 또는 채권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배당 또는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금현물을 일부 처분할 수 있으며 금현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금 현물가격과 ETF의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현물 보관 위험	금현물 보관인은 보관하는 금현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불가항력이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원인, 즉, 천재지변, 홍수, 해일, 전쟁, 해상봉쇄, 소요, 파업(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업에 한함), 화재(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해충(질병) 등으로 인한 이동의 금지 등을 포함한 이유에 기인한 금현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금현물 보관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한 금현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격괴리 발생 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집합투자자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류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집합투자자구의 환매가 정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투자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의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